

“老? NO!”... 시니어들의 황혼 새 인생 찾기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선 지금...

시니어들이 달라지고 있다. '60대 청춘'이라는 말처럼 노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가꾸며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광주시 남구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과 북구 효령 노인 복지타운은 젊은이의 거리를 방불케 한다. 광주 총장로가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클럽과 주점 광고로 현란하다면, 건강타운에는 60~80대들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광고문으로 청년타운 못지 않다.

시니어들이 이성 친구를 찾는 광고문부터, 다양한 '번개모임'을 주도하는 등 과거 노인들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활기가 넘친다.

70대 남자라고 자신을 밝힌 한 시니어는 최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내에 '전남도와 전북도 일원 섬을 함께 구경 다니실 60~70대 남녀를 찾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함께 여행갑시다'는 내용. 다만 20대 남성이 또래 여성에게 말할 때 느껴지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 김치 함께 담글까요', '함께 차 타고 건강타운 이용하실 분을 찾습니다' 등 젊은이들처럼 직설적이지 않지만 은근함이 느껴지는 광고문이 재미있다.

광주시 북구 효령동 노인 복지타운에서는 자신을 60대 후반이라고 밝힌 노인이 '이성 친구를 찾습니다'며 파트너를 찾는 공개 광고

'액티브 시니어'들 크게 늘어 이성·며느리 찾는 광고에서 다양한 '번개모임'까지 활발

문을 내뿜어 회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파트너 찾는 광고만 있는 게 아니다. 식사 때마다 시설 밖으로 나가 함께 밥을 먹는 '점심파', 노래로 스트레스를 날리는 '노래방파', 주말에 교외로 나가는 '여행파' 등 다양한 주제로 만남을 제의하는 광고문도 적지 않다. 이른바 '번개' 모임이다.

건강타운 관계자는 "모임은 물론 댄스 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서로 은밀하게 만나기도 하고 자신의 파트너를 빼앗아 갔다며 귀여운(?) 질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10명의 친구보다 한 명의 '약처'가 낫다'는 말처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도.

다 큰 자녀를 위한 '중매' 광고문도 적지 않다. '사윗감 구합니다. 서울에서 약국 경영하고 효성과 우애가 지극합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중매 바랍니다'라는 광고나 '신부를 구합니다. 35세, 1남1녀. 신부 연령은 31세부터 35세까지'라며 구체적 내용까지 거론해 광고문을 내뿜기도 한다.

마흔이 넘은 막내딸의 사윗감 구하기 공고를 붙인 최모(70)씨는 "딸을 위해 나서는데 부끄러운 게 어딤나"며 "보름만에 벌써 8차례 연락이 올 만큼 효과가 좋다"고 귀띔했다.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관계자는 "은퇴 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전통적 어르신 이미지와 달리, 지금은 과거의 감성과 가치를 함유하면서도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빛고을·효령 노인건강타운의 총 회원은 5만4000여명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은 6000여명에 이른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4컷툰 (8854) 김장두



의붓딸 학대 40대 집유 2년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23일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는 등의 불법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잘 키우고 싶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등 이상징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번에는 선처해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d@

채팅 여중생 유인해 성폭행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족을 미끼로 여중생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이 경찰서형.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모(30)씨는 지난 9일 밤 11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에 사는 A(15)양의 집에서 A양을 유인한 뒤 한 차례 성폭행했다는 것.

○이씨는 교복을 입고 약속 장소에 나온 A양에게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나오라고 말한 뒤 A양의 짐까지 따라가 못된 짓을 했는데, 경찰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진술.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學暴 학생부 기재 완화

5년간 기재서 졸업 후 삭제로 광주교육청 여전히 기재 반대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학생부 기재기간이 현행 5년에서 졸업 후 삭제로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인권침해와 이중 처벌 성격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 결했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해 졸업 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처럼 학생부 기재를 대폭 완화한 만큼 그동안 거부하거나 보류해왔던 광주·경기·전북 등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부 기재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침해 요소와 이중처벌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어 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학생부 기재 보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폭력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7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1년에 10시간으로 운영되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 정규시간에 학교별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2학기부터 300개 학교에서 어울림을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실천하는 '꿈키움학교'를 2학기에 1000개교, 내년엔 3000개교 이상을 선정해 재정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내 대안학급도 운영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하에 별도 대안학급을 편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2학기부터 100개교에 대해 대안교실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제3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번호인 '117'을 무료 긴급전화로 지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일반고는 현재 1명당 20개교에서 내년엔 10개교로, 고위험학교는 같은 기간 1명당 1~7개교에서 1~5개교로 늘린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여중생들 "불법주차 나빠요" 광주 북구청이 예비운전자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을 위해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불법주차단속 청소년 체험단'의 참가 여중생들이 주차차 위반 계도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모래시계' 김종학 PD 자살

고시원서 연탄불 피워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은 유명 드라마 PD 김종학(62·서울 강남구 논현동)씨가 분당 한 고시원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기사 16면>

23일 오전 10시 18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Y빌딩 5층 고시원 방에서 김씨가 침대에 누워 숨져

있는 것을 관리인 이모(5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드라마 '신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피소, 지난달 2차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경찰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습뉴스

광주선 20대女 번개탄 자살

북구 용봉동 고시원서

유서는 발견 안 돼

23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 고시원 룸에서 A(여·21)씨가 숨져 있는 것을 고시원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주인은 경찰에서 "A씨의 방 주변에서 씌는 뱀새가 심하게 나 가봤다

니, A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부터 이 고시원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도 미뤄 김씨가 며칠 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입학문의 ▶ 062-605-1115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www.kwangshin.ac.kr

【 주요일정 】

1.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3. 8. 5(월) - 8. 16(금)

② 전 형 일 : 2013. 8. 20(화)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3. 8. 26(월) 오후 2:00

④ 등 록 기 간 : 2013. 8. 27(화) - 29(목)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모집정원	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
	석사	신 학 과(Th.M.)	○	구역,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석사	신 학 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건물매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 143평, 건물 480평, 2012년도 신축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100평)
- ▶ 감정가/시세 - 24억원
- ▶ 임대 - 보3억원에 월1,600만원 (임대 중)
- ▶ 대출 - 14억원(이자 월560만원)
- ▶ 매매가 - 24억원
- ▶ 수입 - 7억원 투자에 월 1,040만원
- ▶ 주인 직매함, 010-3605-5000